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9.20)

1. 한국 정부의 WTO 제소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하여 스가와라(菅原) 경제산업성 장관은 한국과의 양자간 협의에 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표명¹⁾
- o 스가와라 장관은 “이 수출관리 재검토 조치가 WTO 협정과도 정합적이라는 일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제대로 설명해 나갈 것” 이라고 하였음.

□ [일본 언론 동향]

- NHK는 한일 양측의 주장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규정된 60일 이내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WTO 재판소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로 심리가 진행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²⁾
- 닛케이의 양자간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공산이 크며, 심리가 장기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³⁾

2. 삼성전자의 일본 의존도 관련

□ [일본 언론 동향]

- 닛케이산업신문은 삼성전자가 부품소재에서 앞서가는 일본에서 소재를 조달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아직까지는 일본을 중시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보도⁴⁾

1) 「韓国のWTO提訴 菅原経産相2国間協議に応じる方針」 『NHK NEWS WEB』(2019. 9. 20).

2) 각주 1과 출처 동일

3) 「日韓、2国間協議へ、輸出管理、WTO提訴受け。」 『日本経済新聞』(2019. 9. 20).

4) 「冷静サムスン、日本重視続く、半導体先端部材で日韓総相互依存、分業体制、水差す政治。」 『日経産業新聞』(2019. 9. 20)

○ 삼성전자가 거래 사실을 공표한 100개 공급사 중 일본계 기업이 23개 회사로, 한국계 기업(39개사) 다음으로 비중이 높음.

- 따라서 일본 부품소재 공급처들 중 “그렇게 간단하게 재료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대다수

- 일본계 부품소재 기업들은 “삼성 경영진의 일본을 중시하는 태도에는 흔들림이 없다” 고 평가

- 닛케이산업은 첨단부품소재를 외부에 의존하는 삼성과, 최대 고객을 잃고 싶지 않은 일본 공급업체들의 상호 의존도 관계는 아직까지 견고하다고 하면서도,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첨단부품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대체 조달처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논평

- 또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도발행위가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와 일본계 기업들이 쌓아 온 공존공영의 분업체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전망

3. 한일 외무장관, 국장급 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관련

□ [동향]

- 일본 언론은 한일 외무국장급 협의(9.20)에서 한국 측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도⁵⁾

○ 외무성 타키자키(滝崎)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로 피고 일본기업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해결책을 반복하여 요구하였음.⁶⁾

○ 또한 한일 외무국장은 양국이 상대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교환함.

5) 「韓国外務省 日韓局長協議で輸出管理強化の撤回要請」 『NHK NEWS WEB』 (2019. 9. 20).

6) 「韓国に徴用工解決要求 日韓外務省局長が協議」 『静岡新聞』 (2019. 9. 20).

- 일본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UN 총회 때 양국 정상의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양국 외무장관 간 회담은 26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율중⁷⁾

7) 「日韓首脳会談見送り 外相間は実施 国連総会で両政府方針」『静岡新聞』(2019. 9. 20).